

남북 종교 교류의 현황과 문제 - 기독교를 중심으로 -

유 종 선
사회과학대학 정치학

I. 서 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이름과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점진주의'(gradualism)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현재 남북간에 적대감과 상호이질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통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남북간의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화해와 평화공존의 분위기를 조성한 연후에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 경제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 등 민간분야에서 남북교류의 확대가 어떤 정치적 통일논의보다 앞서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간 민간교류의 한 분야로서 종교, 특히 기독교 분야에서의 교류확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남북간 종교교류는 아마도 아직까지는 어떤 가시적 성과가 크지 않고 또한 정치적 교류나 경제적 교류에 비해 일반인들의 관심 영역에서 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교세와 남북 교류에 대한 열의, 그리고 공산권의 몰락과 개방화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남북 기독교 교류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본격화될 때 다른 어떤 비정치적 교류보다도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에 큰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는 남북간 종교교류 확대를 대북 통일정책의 주요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소위 '햇볕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남북간에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남북 종교교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 기독교의 현황 및 북한의 기독교 정책, 남북 기독교 교류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남북 기독교 교류 확대가 통일과 남북화해에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남북 종교교류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II. 북한 기독교의 역사, 현실, 북한의 기독교 정책

본장에서는 해방 후 북한 당국의 기독교 탄압의 배경과 원인, 북한 기독교 정책의 본질, 최근 북한의 기독교 정책 변화,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의 참모습 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해방 후 북한 기독교사와 북한의 기독교 정책의 실상

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간 종교교류 운동이 해방 후 북한 기독교사와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 대한 특정한 시각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방 후 북한 기독교사와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 대해서는 상이한 두 개의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편의상 이를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으로 부르기로 한다.

먼저 보수적 입장에서는 해방 후 북한 당국이 교조적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종교를 "비과학적 미신", "부르조아 독재 이데올로기", 또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로 몰아세우고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고 말한다. 그 결과 지금 북한에는 종교가 완전히 멸절되고 말았으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내세우는 조선기독교도연맹 따위의 종교단체는 완전히 허구이고 통일전선전략적 선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진보적 입장에서는 해방 후 북한 기독교사와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이 역사적 사실로써 검증받지 않은채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고 하고, 나아가 이러한 맹목성 때문에 북한의 어떠한 주장도 무조건 불신되고 적대시됨으로써 진정한 상호이해에 기초한 남북간 종교적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보수적 입장에 선 해방 후 북한 기독교사와 북한의 기독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이에 관한 저술들도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고¹⁾ 다음에서는 주로 진보적 입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보적 입장에 동의해서라기보다는 양자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

1. 북한 교회의 현실과 역사 : 북한 정권의 기독교 탄압 원인에 대한 진보적 해석

현재 북한에 기독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약 만여명의 기독교 신도와 수백 개의 '가정교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공식적 교회로는 오직 최근 평양에 세워진 봉수 교회와 칠골교회가 있을 따름이며,³⁾ 조선기독교도연맹이라는 이

-
- 1)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_____ 『북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 김광수, 『북한기독교탐구사』 등이 이 분야의 영향력 있는 저술로 꼽힌다.
 - 2)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다. 북한 교회 관계자들이 숫자를 5천여명에서 많게는 5만여명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그들 자신도 믿음만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강양욱 목사 기자회견 (1972)", 김홍수 편, 『해방 후 북한교회사』, 507쪽 참조). 조선기독교도연맹의 고기준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북의 교인은 약 1만명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고기준 목사와의 대담", 제일 대한기독교회 총회 평화통일선교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한(조선)반도 선교』, 244쪽 참조). 그렇지만 일부 한국 교회들은 북한의 '지하'에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카타콤 교회'와 신자들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이신규, "5만 기독교인 수용소에 갇혀 있고 ...", 『신앙계』, 329호(1994.9), 42-3쪽 참조. 한 비밀 북한 선교사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에 "1천2백-1천5백개 정도"의 "저소교회"와 "5-10만 정도로 추산되는 ...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말한다.) 필자가 면담한 한 북한선교 단체에서는 심지어 북한에 150만명의 '지하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다지 신빙성은 없다. 공산국가들에 소위 '카타콤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공산권 선교 운동가들에게는 하나의 신화처럼 굳어져 있는 믿음이다 (김영국, "소련 지하교회의 수난", 신평로교회 선교부 편, 『북녘의 하늘과 그 땅』, 64-71쪽 참조).
 - 3) 봉수 교회는 1988년 11월 6일, 칠골교회는 1992년 11월 22일에 준공되었다. 칠골(七谷)은 김일성의 모(母) 강반석의 고향으로, 이 곳에 일찍이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었으며 강반석은 자주 어린 김일성을 데리고 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한다 (홍농근, "제2의 평양교회<칠골교회> 건축을 보고", 김홍수 엮음, 『해방 후 북한교회사』, 418쪽). 김일성의 가계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영호, "김일성 생애 초기의 기독교적 배경", 김홍수 엮음, 같은 책, 258-271쪽 참조.

름의 기독교 단체가 북한 교회를 공식 대변하고 있다.⁴⁾ 해방 전 2천여 교회와 25만여의 신도 수를 자랑하던 것과 비교해볼 때⁵⁾ 오늘날 북한에 기독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니다.

북한에 이처럼 기독교가 멸절한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북한 정권이 해방 이후, 특히 6.25 전쟁 이후 지속적이고도 혹독한 기독교 억압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왜 북한 정권은 기독교를 억압했는가?

보수주의자들에 의하면 해방 후 북한에서 기독교가 탄압받은 이유는 기독교를 가난한 대중으로 하여금 부르조아의 착취에 눈멀게 하는 반동적 이데올로기로 보는 마르크스 이론의 속성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에서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충돌은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의 비판자들은 이것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북한 공산주의의 종교관을 지나치게 교조적으로 해석한 것일뿐 아니라, 기독교의 ‘순수하지만은 않은’ 어떤 면 때문에 북한에서 기독교가 탄압받게 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보적 입장에서 해방 후 북한 당국이 교회를 탄압한 이유로서 흔히 거론되는 것들이 해방 이전 북한교회가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던 반공주의, 부르조아적 계급성, 친미주의 등이다.

한국, 특히 북한 교회의 반공주의는 그 뿌리가 매우 깊고 강하였다. 물론 해방 후 북한 당국의 기독교 탄압이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를 더욱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의 뿌리는 이미 1920년대 초 한국에서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교회는 이미 해방 전 굳건한 반공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1918년 사할린에서 조선사회당이라는 한국 최초의 공산당을 결성한 이동휘, 1922년 모스크바의 제1차 극동피압박민족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규식, 여운형이 그들이다. 이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것은 “불만불평한 세계를 부인하고 무삼 신세계를 조성코자 함에는 기독교 사상과 사회주의가 상동하다”⁶⁾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한국 교회의 주류와는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3.1 독립운동의 실패 이후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탈정치와 순수복음주의의 노선을 걷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교회는 이미 1920년대에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핍박하는 악마’라는 인식을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만주에서 벌어진 기독교와 공산주의간의 직접적 충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당시 동북아를 휩쓸던 공산혁명의 분위기에서 기독교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어떤 선입견 같은 것도 커다란 요소로 작용한 듯이 보인다.⁷⁾ 교회가 주목한 것은 공산주의의 사회적 이상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신을 부정하는

4) 현재 조선기독교도연맹 회장은 강영섭으로 금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실력자이며 김일성의 외가 쪽 친척이 아닌가 여겨진다.

5) 『기독교대연감』 1992. 위의 책 428쪽에서 재인용.

6) 초기 사회주의자 이대위의 『청년』 지 발언. 손규태, “분단 상황에서서의 기독교의 역할”,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424쪽에서 재인용.

7) 일제 때 공산주의와 교회의 물리적 충돌은 국내가 아닌 만주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교회 핍박의 소문이 교회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악마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으며, 이것이 다시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교회박해를 극화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당시 교회의 한 북만주 교회 시찰보고서는 이미 일제 시대에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간의 충돌이 극심했던 것을 암시하고 있다.

북만교회는 순교의 피로 쌓은 교회다. 북만의 순교자라면 ... 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잔악을 극

유물론, 반종교성, 폭력 계급투쟁론이었다. 이 점은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여서, 당시의 소련과 중국에서의 혁명적 열정에 휩싸인 급진적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반혁명적 부르조아 지배와 일제 침략의 앞잡이로 매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교회나 공산주의자들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었다. 사실 한국의 교회와 공산주의는 정치적 태도나 전통에 있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 해방 후 북한의 많은 기독교계 인사들이 건준에 참여했다든지,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한경직의 기독교 사회민주당 등 해방 직후 북한에서 결성된 기독교계 정당들이 한결같이 토지제도의 개혁, 기간산업의 국유화 등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은 어느정도 사회주의적 이상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⁸⁾ 그러나 교회와 공산주의는 일제 치하에서 간직해온 상대방에 대한 맹목적 선입관으로 인하여 그 어떤 이성적 대화도 시도하지 못한 채 파국의 길을 가고 말았던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당시 한국 교회가 공산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과연 ‘부르조아적 계급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해방 후 북한교회가 수난을 당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유산계급을 편드는 교회의 사회정치적 성분 때문”⁹⁾이라는 주장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교회수난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출신성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해방 직후 북한 교회가 분명히 부르조아적 계급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이 최소한 교회와 북한 공산정권과의 갈등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정확한 통계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지만 해방 당시 북한 교회가 지주, 상인, 자본가 등 중산 계층 이상 출신의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고 믿을만한 개연적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 1946년 실시된 토지개혁으로 땅을 빼앗기고 불평한 사람들 가운데 목사, 장로의 이름이 많이 올라 있었다든지, 토지개혁 직후 기독교인들의 대거 월남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 하는 사실 등이 교회의 이러한 계급성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할 것이다.¹⁰⁾ 특히 당국과의 충돌이 극심했던 서북 지역 교회들에서 이러한 계급성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이의 지도자들 중에는 일제 때 적극적 친일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¹¹⁾ 따라서 이들은 교회의 사회적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급격한 공산주의적 개혁보다는 남한에서 추진되고 있던 자본주의적 개혁 또는 온건한 사회주의적 개혁에 더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해방 직후부터 교회와 당국간의 갈등은 점차 골이 깊어져 갔고, 1946년 전격적으로 실시된 토지개혁 때 교회와 지주 출신 교계 지도자들이 소유한 많은 토지가 몰수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반면 사회적 기반이 비교적 무산대중에 넓게 퍼져 있었던 함경, 황해 지방의 교회는 공산주의적 사회개혁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적극적인 지원세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전통적 사가들이 관변어용단체로 치부하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이 보수교단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교회 내 무산계

한 공산당에게 뭉치에 맞아 죽은 순교자, 정수리에 못박혀 죽은 순교자, 머리 가죽을 벗겨 죽인 순교자, 말못할 학살을 당한 여 순교자, 기십기백에 달하였다 한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여서도 김현점 목사와 같이 공산당에게 살을 찢어 벗긴 꺾박을 당한 자도 있다 한다. ... (민경배, 『한국의 기독교회사』, 327쪽에서 재인용)

8) 조만식의 조선민주당 창당은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97-103쪽 참조.

9) 김홍수, “해방 직후 북한 교회의 정치적 성격”, 김홍수 엮음, 『해방 후 북한교회사』, 53쪽

10) 변진홍, “북한 ‘침묵의 교회’와 공산주의”, 김홍수 편, 같은 책, 92쪽 참조.

11) 오기영, “예수와 조선 - 혁명정신의 반동화를 계하여”, 김홍수 편, 같은 책, 282, 285쪽 참조.

급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교회의 승미(崇美)사상 내지는 소위 제국주의적 침략의 동조세력으로서의 성격이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되어 온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의 머리 속에 승미사상이 ... 뿌리깊이 박혀 있다”¹²⁾고 한 김일성의 말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북한 교회는, 아무리 기독교가 “사회제도를 초월”¹³⁾한다고는 하나, 대체로 미국이 남한에 실현하려고 하는 미국식 정치제도와 이념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 해방 직후 한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이를 잘 말해준다.

... 북쪽으로부터 남한 교회의 조건들을 고려해보는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마음이 놓인다. 여기 남한의 문들은 넓게 열려 있다. 우리가 기꺼이 생각할 자유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할 자유 그리고 아무런 강요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수행해나갈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 도대체 군정이 제기한 정책과 이론, 그리고 독립을 향한 더딘 진보를 참지 못해 생기는 견해의 차이점들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감사함을 느낀다는 점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감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죽음에서 삶을 얻었고, 옥중생활과 같은 간헐한 삶에서 석방되어 하나님의 정원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쁨과도 같다.¹⁴⁾

심지어 해방 후 북한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남한의 친미적 정치세력과 내밀히 연결되면서 미군정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인사들도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친미적 성향이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한국전쟁시 일부 우익 기독교도들이 배후에서 반공투쟁에 가담하였고, 국군과 미군의 복상에 편승하여 공산당원들에 대한 대대적 보복활동을 벌였던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전쟁중 미군의 공세, 특히 대규모 공중폭격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반미의식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교회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예를 들어 1950년 11월 8일 미군이 신의주를 폭격할 때 신의주 제1, 제2교회가 직격탄을 맞아 때마침 교회에 모여 있던 수백명의 교인이 몰사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¹⁵⁾ 이런 와중에서 일부 기독교도들이 보여준 친미적 가혹행위 - 또는 그러한 소문 -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기독교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미국을 믿었던 많은 기독교도들조차 실망한 나머지 그들의 종교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다.¹⁶⁾

아무튼 북한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러한 한국전의 경험 때문에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오랫동안 간직해오던 승미사상을 버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예 기독교 자체에 대한 혐오감이 주민들간에 고조되어 전후 기독교세의 급격한 위축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전후 북한에서 기독교세의 약화는

12) 1953년 노동당 중앙위 7차 전원회의에서의 발언. 강인철, “현대 북한 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편, 『해방 후 북한교회사』, 174쪽에서 재인용.

13) 한경직, “기독교와 공산주의”, 『건국과 기독교』, 김홍수 편, 같은 책, 293쪽에서 재인용.

14) 김관식, “한국의 기독교회”, 김홍수 편, 같은 책, 307쪽. 김관식은 일제말 어용기독교 단체인 ‘일본기독교조선선교단’의 간부였다.

15) 강인철, “현대 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편, 위의 책, 179쪽.

16) 김홍수 편, 같은 책, 179-80쪽.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반종교선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반종교 선전이 성공을 거둔 데에는 한국전을 통하여 배태된 반미주의, 반기독교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혹자는 전쟁 중 미군과 기독교인들의 잔혹행위가 북한 당국에 의해 선전적 차원에서 왜곡 과장된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반미, 반기독교적 정서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과 과정이야 어떻든 지금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기독교와 미국에 대한 이러한 정서가 확고부동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해방 직후 북한 교회가 말 그대로 ‘미제침략의 앞잡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숭미주의내지는 친미주의적 성향을 간직하고 있었고 이것이 북한 정권이 기독교를 탄압하게 된 한 가지 요인이었다는 점만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2. 북한 당국의 기독교 정책과 소위 ‘지하교회’의 문제

다음으로 북한당국의 기독교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유물론과 종교는 병탄의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금지하고 탄압하는 정책을 일시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¹⁷⁾ 따라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말한 다든지, 이의 증거로 조선기독교교도 연맹 같은 기독교단체를 내세운다든지, 심지어는 최근 평양 한복판에 교회를 내세운다든지 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거짓이며, 내부적으로 추진되어 온 비인도적 종교탄압 행위를 외부로부터 은폐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종교탄압 정책은 사실 공산권 내에서조차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했고, 이 결과 지금 북한에서는 소수의 지하 “카타콤” 교회를 제외하고는 기독교가 거의 멸절한 상태라고 한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에 대한 아편”으로 규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철학적으로도 유물론과 종교는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레닌에 의해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되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는, 아마도 혁명의 현실적 요구 때문에 이미 상당히 완화되어 있었다. 레닌 자신이 국가와 관련된 한에서 “종교는 사적인 일로 선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¹⁸⁾

물론 그렇다고 레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반종교선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부터 ‘마르크스주의의 교리적 요구 때문에’ 종교, 특히 기독교를 금지하고 탄압하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좀 더 사실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내심 종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기독교만 30만을 헤아리고 - 천도교의 경우에는 이 수가 더욱 많았다 - 또 교회가 강력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혁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전술적으로라도 기독교를 포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일성은 일찍이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종교인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도 다같이 손잡고 새 조선 건설을 함께 해나가려고 한다.”¹⁹⁾ 고 말했다 하고, 그 후로도 그는 이 같은 요지의 발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또 해방후 한국전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일

17) 이러한 전통주의적 입장에서 가장 인용되는 것이 정하철의 “우리는 왜종교를 반대하여야 하는가?”(노동당출판사, 1959)라는 논문이다.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283-304쪽에 전문이 인용되어 있다.

18) 강인철, “현대북한종교사의 재인식”, 김홍수 편, 앞의 책, 141쪽에서 재인용

19) “애국애족의 위대한 품”, 평양신문, 1987년 6월 24,27일자. 김홍수편, 같은 책, 527쪽에서 재인용

부 기독교 세력이 탄압을 받고 그 결과 기독교 세력이 현저히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혹자가 상상하는 것처럼 북한정권이 혹독한 기독교 탄압정책을 펴지는 않았던 듯이 보인다.²⁰⁾ 대부분의 일반신자들은 그들의 신앙행위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1948년의 북한헌법에서도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필자가 시사하는 바는, 북한 당국이 기독교를 ‘장려’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기독교 금지’를 국가의 공식적 이념으로 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혹자는 여기 대해서 만약 그렇다면 6.25전쟁 이후 북한 당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온 “반종교선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라는 반론을 제기할지 모른다. 김일성 선집, 북한에서 간행된 각종 사전, 교과서, 신문, 정부간행물에서 보여지는 종교에 대한 단죄²¹⁾는 북한 당국이 혹시 한국전 이전에는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기독교를 묵인했을지도 몰라도, 전쟁 후에는 종교 말살정책을 체계적이고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왔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필자는 북한이 벌여온 “반종교선전”도 어디까지나 그들 헌법에 명시된 “반종교선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전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온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것이 공식적인 종교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반종교선전이 기승을 부린 결과 드러내놓고 종교활동을 하거나 반종교선전에 대한 ‘역선전’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종교인을 요주의인물로 감시한다든지, 그들의 사회적 진출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막고 억눌러온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종교를 가지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고라도 종교를 가지려 한다면 어쩔수 없이 이를 묵인하는 것이 그간 북한 당국의 공식적 종교정책이었다고는 하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 내 소위 ‘지하교회’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한에는 수백내지 수천개의 ‘지하교회’와 많게는 수만명의 ‘지하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보수적 교계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하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종교금지’의 국가시책을 펴왔다면, 더구나 공산권에서도 유례가 없는 통제사회임을 인정한다면, 한 두 개도 아닌 ‘수백개’의 지하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말인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박해를 피해 오랫동안 지하에서 ‘발각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북한사회의 통제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종교금지’ 시책에도 불구하고 수백개의 교회가 수십년을 발각되지 않은채 있어왔다고 하면, 이는 북한사회가 생각보다 훨씬 느슨하고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북한당국에 의해 ‘묵인되어 왔다’고 말하는 것이 좀더 상식적이고 사실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면 ‘지하’ 교회라는 용어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지하’ 교회가 아닌 ‘지상’ 교회이기 때문이다.

20) 1949년 현재 북한의 개신교도들은 “약 20만여”로 보고되고 있는데(조선중앙연감, 1950년판. 김홍수편, 삼은 책, 496쪽)이 숫자를 믿는다면 1940년 당시 북한 지역의 개신교도 수 약 26만명(기독교연감, 1992년판)에서 크게 줄지 않았다.

21) 고태우, 앞의 책, 249-282에 인용되어 있는 “북한의 반종교 논조”들을 참조하라.

나아가 이것은 소위 지하교회의 신앙적 성격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이 교회를 묵인 해왔다고 할 때, 여기에는 물론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말해 교회가 ‘혁명사업’에 적극 동참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해방 후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친미반공의 입장에 섰다든지 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도모했다고 하면 이는 당연히 박해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북한의 교회가 당국의 묵인하에 지속되어 왔다고 하면 이는 북한 교회가 이러한 ‘반동적’ 이념과 경향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는 것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하교회’가 해방 직후의 그러한 반공주의적 전통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리라는 가정은 사실에 맞지도 않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건설적인 남북종교교류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수 없다고 본다.

3. 북한의 기독교 정책은 변하고 있는가?

북한의 기독교 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특히 최근 들어 북한 내에서 반종교 선전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종교선전’이 상당한 정도로까지 묵인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이미 70년대 초, 북한이 남한 내 반체제 종교인사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려 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부터 북한 당국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강조하고, 그 동안 잊혀져 있던 조선기독교연맹 같은 종교단체를 전면에 등장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때만 해도 이러한 표면적 정책변화는 알맹이 없는 선전에 불과하고, 다분히 대남전술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²²⁾ 어쨌든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관계가 이론적으로 명확히 규명되고 해명되지 않는 한,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근본적으로 설득력과 신뢰성을 결여한 것이었다.

사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이후 양자의 합일 내지는 조화의 가능성에 대한 수 없는 논쟁이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반명제적인 존재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결국 양자가 조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존재론적 요소- 곧 무신론이나 유신론이나 하는 문제-를 무시한채, 양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상 또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양

22) 당시 북한에서 발표된 한 논편을 여기 인용하기로 한다.

..... 반미구국 통일전선 운동에서 종교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과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남조선의 현실적 조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조선 종교계의 복잡한 사정은 노동계급의 당이 종교문제에 있어서, 특히 상층의 개별적 종교계 인사들과 일반 근로인민의 신도들에 대하여 계급성의 원칙에서 개별적으로 대하며 통일 전선의 원칙에 따라 실천활동 속에서 검증하고 정확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조선 종교계의 구성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기초 위에서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종교신도들을 조국통일과 반파쇼 민주화의 기치 밑에 세운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현시기 남조선에서 종교인들과의 통일전선은 반파쇼 민주화의 정치적 목표물 그 기초로 하여야 한다. 노동계급의 당은 이 정치적 목표 밑에 광범한 하층 신도들을 통일전선으로 묶어세우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그들을 각성시켜야 하며 적아(잘 자란 떡잎- 필자주)를 가려 낼 줄 알고 상층 종교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종교를 이용하려는 내의 원수들의 간계를 짓부수면서 다른 근로인민과 함께 당의 두뇌에 뭉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과정에서 그들로 하여금 점차 종교교리의 허황성을 깨닫고 그 사회적 근원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도록 하여야 한다...(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노동당출판사, 1976, 112-114)

자의 인식과 처방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해방신학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근본적 반명제성으로 인하여,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이러한 노력들은 항상 전통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게 마련이다. 해방신학은 흔히 보수적 신학자들로부터는 '이단'으로, 교조적 공산주의자들로부터는 '수정주의'로 매도된다. 70년대 이후 북한의 종교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면서도 해방신학류의 이론작업을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이처럼 '정통' 공산주의 이론 - 주체사상의 차별성이 강조되기 이전까지 북한은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정통적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었으므로 - 이 기독교 교리와 쉽게 접목될 수 없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북한의 교계에서는 북한의 정치이념과 기독교적 교리를 조화시켜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세련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도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어쨌든 이것은 북한의 종교정책이 '종교선전에 대한 적극적 목인'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80년대 이후 주체사상이 북한의 정치이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으면서 이의 기존 공산주의 이론들에 대한 차별성이 유독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체사상의 이론적 집대성으로 간주되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면, 주체사상이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을 더욱 발전시켜 마르크스 이론에도 없던 사람과 역사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론을 구축했다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대신 "사람과 역사에 대한 주체사상의 전혀 새로운 이론"이 전면에서 부각된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을 가진 존재로, 이러한 주체적 입장에서 사회적 예측과 자연의 구속에서 해방되기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며, 이것이 곧 인류역사의 본질이라고 한다. 이것은 사실 정통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에 대한 중대한 수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인간의 의식이 물질세계와 사회의 계급적 구조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한데 비하여, 주체사상은 오히려 인간의 의식이 물질세계를 뛰어 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물론적 입장의 수정과 사람중심의 철학, 곧 인본주의는 공산주의 이론과 기독교교리의 근본적 반명제성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공산주의자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이론적 빌미를 제공했다.

두번째로 80년대 이후 남북한 종교인사들간의 상호교류가 빈번해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6공화국 이후 정부의 대공산권 문화개방 정책에 편승하여 남북종교인들간의 공식 비공식 접촉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문제들이 당사자들간에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북쪽 기독교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남쪽 기독교인들의 북한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한 해묵은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독교의 교리가 공산주의 이론으로써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기초하여 최근 북한 기독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변론의 이론적 작업은 크게 두 개의 기본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주체사상과 기독교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를 기독교에 대한 소극적 변명과 관련된 것으로 - 다시 말해 기독교와 북한의 정치이념은 반명제가 아님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 본다면 후자

는 조국 통일의 대의명분으로 기독교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초보적이거나 대강 다음과 같은 이론적 체계가 제시되고 있다.

1. 종교에 대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비과학적 세계관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했으나 주체사상은 인민의 정당한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종교는 배척하지 않는다.
2. 종교와 주체사상은 모두 사람을 중시하고 인간구원을 제일의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3. 인간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주체사상은 인간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강조함으로써 종교 특히 기독교와 이해를 같이 한다.
4. 다만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절대자의 조력을 요구하는데 비하여 주체사상은 철저히 인간의 노력만을 강조한다는 점이다.²³⁾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체사상이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와는 달리 종교를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으나, 그 포용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무산계급의 사회적 해방에 종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실용성과 합목적성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종교의 유신론이 과학적 세계관이나 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엄격히 말해 기독교와 주체사상의 대화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둘은 여전히 존재론적 세계관에 있어 궁극적으로 합치될 수 없는 상이한 요소들을 품고 있으며, 단지 회피함으로써 이러한 반명제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데 ‘주체사상적 기독교’의 고민이 있다. 과연 이러한 내재적 모순이 앞으로 어떻게 이론적으로 해소될 것인지, 또는 끝내 해소될 수 없을 것인지 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와 통일에 관한 문제이다. 이 주제는 이론적으로 별다른 위험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독교와 주체사상간의 관계라고 하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주제로부터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남쪽의 진보적 기독교계와의 통일전선적 연계를 위해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 기독교 인사들에 의해 매우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북한에서 기독교는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명분 하나로 정당화되고 있으며 남북 기독교 인사들의 공식 비공식 접촉에서도 ‘기독교와 통일’이라는 문제가 거의 유일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기독교와 통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조선기독교연맹 평양시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김운봉 목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는 설교를 예로 들어보자. 그는 분열 -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민족 내부, 민족간의 분열을 막론하고 - 이야말로 하느님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은 곧 기독교도의 사명이라고 말한다. 조국의 통일도 마찬가지며, 조국의 통일은 조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 앞서 노력해야 할 신앙적 의무이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분열된 것은 혹자가 말하듯 하느님의 섭리도, 민족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다. 화근은 오직 침략과 약탈, 착취와 억압, 살인과 도적, 간음과 협잡 등등 죄악중의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으며

23) 한국기독교협의회 통일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통일문제 주요 자료집」, 39-40, 129-130쪽에 나와 있는 김영철 조평통 선임연구원과 황장엽 노동당 서기의 발언 참조

도저히 용서치 못할 범죄를 거리낌없이 구상하고 조작하고 자행하고 있는 현세 악마들의 소행에 있으며, 이 악마들이란 곧 “침략적 외세와 그의 노복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에 다름 아니다.²⁴⁾ 이러한 “악마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루는 것은 곧 “하느님의 명령이고 민족의 일치한 절규”²⁵⁾이며 통일은 7.4남북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대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⁶⁾

또다른 설교에서 그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과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민족적 비극에 처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외세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의 설교를 찬찬히 뜯어보면 조국분단의 원흉은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이들을 물리치고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그들의 상부적인 조국통일 선전이 기독교적 언어로 교묘히 분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단 김운봉 목사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알려진 북한 기독교계 인사들의 대내외적 발언이나 설교들은 압도적으로 ‘기독교와 민족통일’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제와 주장이 남한 내의진보적 교계에서폭넓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볼 때, 앞으로도 북한은 ‘기독교와 통일’의 종교선전을 대내외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기독교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과연 북한은 해방후 지금까지 종교말살의 정책을 추구해왔는가? 만약 그렇다면 최근 이러한 정책이 중대한 정도로 수정되고 있는가? 앞으로 북한이 필연적으로 개방의 압력을 받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의 종교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여기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해방후 지금까지 북한의 종교정책은 종교금지과 말살이 아닌 ‘종교개조’가 기본적인 목표였다. 다만 이러한 ‘종교개조’는 전통적 교리의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수정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통적 교세, 나아가 교세 자체가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종교개조’ 작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 현재 북한의 종교, 특히 기독교는 해방 당시의 순수복음적이고 반공적인 전통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여진다.

둘째, 최근 북한에서 종교선전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체사상의 이념과 통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교만을 선전할 수 있다’고 하는 뚜렷한 원칙이 있다. 무제한적 종교선전의 자유는 지금까지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법적 제도적 수단들로서 엄격하게 제한될 것이다. 또한 ‘미신적, 반공적, 제국주의적’ 종교에 대한 반선전은 종교선전 자유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개방화와 더불어 종교선전의 자유허용이 체제에 위협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를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종교선전 그 자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종교선전의 내용을 국가가 관리하고 동시에 반종교선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무조건적인 종교금지와 탄압이 반시대적일뿐 아니라 그 효과도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종교는 허용하되 이의 부정적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오히려 이를 국내 외적 정치목표추구에 이용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24) 김운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북한교회의 목사들은 무엇을 어떻게 선교할까? 앞의 책 33쪽

25) 같은 책, 36쪽

26) 같은 책, 36쪽.

Ⅲ. 남북 종교교류의 현황 및 전망

현재 기독교 차원에서의 남북간 종교교류는 크게 두 개의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한국교회협의회(KNCC)를²⁷⁾ 중심한 남한의 진보적 교계가 벌이고 있는 '기독교 통일운동'과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북한 교계와의 대화이다. 다른 하나는 보수 교계가 중심이 된 '북한선교 운동'과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 돕기 운동'이다.

'기독교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운동'은 그저 통일과 선교라는 지향목표의 차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기독교 정책, 북한 교회의 실제, 통일의 의의와 방법에 대한 총체적 입장의 차이를 대변한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독교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운동의 현황 및 본질을 분석하고, 양자의 입장을 상호 비교 비판하며, 이러한 종교교류가 앞으로의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에 미칠 영향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1. 기독교 통일운동

가. 배경

1980년대 들어 본격화된 기독교 통일운동 및 남북 교회의 만남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다. 첫째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12.12 군부 쿠데타, 민주화 운동, 광주 시민항쟁, 군부정권 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내 정치정세의 변화이다. 특히 광주 시민항쟁과 군부 독재정권의 출현은 70년대 반체제 민주화 운동에 진력하던 진보 교계가 그 운동의 방향을 통일운동으로 급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한국 정치의 비민주성이 독재자의 사망이나 정권의 교체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하나의 구조적 문제이며, 조국 분단이 바로 그러한 '구조악의 뿌리'라는 인식의 전환에 기인한다.²⁸⁾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기초로 교회는 선교의 모든 역량을 분단극복과 평화지향의 통일운동에 모으기로 결심하였으며,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갈 한국교회협의회 산하에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1983.9)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1988년 2월 29일 발표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은²⁹⁾ 그 동안의 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언은 조국분단에 교회가 증대한 책임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앞장서 주체적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7.4 공동성명에 나타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인도주의적 남북교류의 우선적 시행, 통일논의에 민중의 참여라는 민족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군사력 감축, 핵무기 철수 등 남북한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19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회년(僖年)으로 선포하고³⁰⁾ 모든 교회가 연대하여 '회년을 향한 대행진'을 벌이기로 하였으며, 북한교회의

27) 한국 개신교회는 70년대 이후 교회의 '사회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진보교계와 '탈정치적 순수복음주의'를 지향하는 보수교계로 양극화의 길을 걸어왔다. 한국교회협의회(KNCC)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양 진영의 입장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28) 박종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교회의 실천",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2쪽.

29)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형상사 편집부 편,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244-258쪽.

동참을 위해 북한 교회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언”에 북한 교회가 언급된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기독교 통일운동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 행위로서 남북간 교회의 교류확대를 1차적 목표로 정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장막에 가려 있던 북한 교회의 모습이 80년대 들어 조금씩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70년대 말부터 ‘해외 남북기독교자회’라는 이름의 재외 기독교자들과 북한 기독교계 인사들과의 만남이 비엔나와 헬싱키 등에서 수차례 이루어졌고, 이에 참여한 일부 재외 학자들이 1982년 북한을 직접 방문 북한 교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가졌다.³¹⁾ 특히 재미 교포 김성락 목사와 홍동근 목사의 방북은, 이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방북한 최초의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교계에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김성락 목사는 김일성과 면담하면서 ‘종교’를 주제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³²⁾ 1982년 방북한 홍동근 목사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소속 원로 목사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주선으로 평양의 한 가정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였다.³³⁾ 북한에 기독교가 남아 있다는 이들의 전언은 한마디로 대단한 충격이었다. 때마침 통일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던 진보 교계에서는 세계교회평의회(WCC)를 통해 북한 교회와의 직접 접촉을 시도하였으며³⁴⁾ WCC의 중재로 마침내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남북 기독교 인사들간의 역사적인 첫 대면이 이루어졌다.

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 1988.11.25

한국교회협의회와 중재요청을 받은 세계교회협의회는 1985년과 이듬해 대표단을 잇달아 북한에 파견하여 교계 인사들을 접촉하고 남한 교계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의 결실로 1986년 9월 스위스 글리온에서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을 대표하는 6인과 한국교회협의회 대표 6인이 WCC의 한 세미나에서 회동하였다. 이 첫 모임에서 친교 이상의 구체적 성과는 없었으나, 양측은 이후에도 WCC를 통해 대화를 계속했고, 1988년 11월 글리온에서 재차 상봉하였다.

글리온 2차 모임에서는 남북교회간의 교류와 연합 통일운동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이의 결실로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 선언”이 채택되었다. 동 선언의 핵심은 8개의 조국 평화통일을 위한 ‘건의’ 사항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회년’이란 구약 레위기 25장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매 50년을 회년으로 정하고 동쪽으로서 남의 종살이하는 이들을 자유민으로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다. 1995년은 조국 분단 50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 해를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는 이 해에 조국통일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노력한다는 것이다. ‘통일의 회년’ 운동은 남한 기독교계의 범교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95년 회년대성회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범교파적 기구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원 편, 『민족의 회년을 향한 행진』; 홍재철, “95년 회년통일 파연 이뤄질 것인가”, 『신앙계』, 329호(1994.9), 48-53쪽 참조.

31) 이들의 북한방문기가 양은식 외, 『분단을 뛰어넘어』에 수록되어 있다.

32) 김광수, 『북한기독교탐구사』, 287쪽 참조

33)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상,하). 동 방북기는 1988년에야 국내에서 출판되었으나 그의 방북소식은 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34) 1984년 10월 일본 도산소에서 개최된 WCC 회의에서 한국교회협의회는 “방문 혹은 다른 접촉형태를 통해 북한에 있는 교회, 기독교인들과의 ... 관계개선을 촉진시킬 것”을 WCC에 공식건의하였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전망 - 도산소 협의회의 보고와 건의안”,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17쪽

1. 1995년을 통일의 회년으로 선포한다. 남북교회는 1995년까지 매년 8월 15일 전주를 ‘통일의 회년주간’으로 지키고 양측이 합의한 기도문을 회년주간 행사에 사용 (1항)
2. 1972년 남북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 지지 (2항)
3.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의로의 대체, 불가침선언, 미군 및 한반도 배치 핵무기 철거 (6항)
4. 군사적, 정치적 대결상태를 외면한 남북교류 반대 (7항)³⁵⁾

글리온 선언은 위의 네 번째 항목을 제외하고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 그 대강이 이미 제시된 것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남북교류 확대 문제는 이의 우선적 추진을 주장하는 남쪽의 입장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청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북쪽의 입장이 맞서 결국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글리온 회합 이후의 남북교회 접촉

글리온 선언 이후 남북 교회는 주로 세계교회협의회 및 이의 각국 지부, 그리고 해외 한인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 접촉을 계속해 나갔다. 북한 교계 대표는 물론 조선기독교도연맹 소속 인사들이고 남쪽은 한국교회협의회 인사들이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1989년 9월 일본 동경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교회의 사명” 회의에 남북 교계 인사들이 참석, 글리온 회합에서 합의된 통일회년 운동의 구체적 방안들과 남북교회의 상호방문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³⁶⁾ 이보다 두 달 앞서 재일 대한기독교회 총회 주최로 동경에서 제1차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도 교회의”가 열렸다.³⁷⁾ 이 모임은 1990년과 1992년 2,3차 회의가 열렸는데, 참가인원과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이 때에는 소위 정통 교단 소속 인사들도 많이 참석했는데, 이는 많은 보수 교단들이 교회협의회 회의 통일의 회년 운동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결과이다. 한국교회협의회는 2,3차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어 황준근, 조동진, 박선희 등의 교계 인사들이 방북, 북한교회와 정치지도자들을 면담하였다. 1989년에는 문익환 목사가 적법절차 없이 방북하여 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1992년 1월에는 교회협의회 권호경 총무가 조선기독교도연맹의 초청을 받고 정부에서 정식 허가를 얻은 후 방북, 김일성을 면담하고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하였다. 김일성은 이 자리에서 한국교회협의회 총회에 북한 대표단의 파견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2월 10일 교회협의회와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회동

35) “한반도(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글리온(Glion) 선언”, 앞의 책, 28-30쪽.

36) KNCC 통일위원회, “남북교회 상봉기 4 - ‘동아시아의 평화에 관한 교회의 사명’ 회의 참가 보고”, 앞의 책, 46-50 참조.

37)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남북선교연구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그리스도인의 역할 :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 참조. 이 모임에는 북한에서 고기훈 목사를 비롯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 5인, 남한에서는 교회협의회, 대한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삼교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하여 같은 달 15일부터 열리는 교회협의회 총회에 북한 교계 대표 10명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 체류일정과 조건 등에 완전히 합의하였다. 이것은 분단 이후 남북교회가 남한에서 처음 시로 만나는 역사적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남한 교계는 범교단적으로 대규모 환영단을 구성하는등 이를 준비했으나, 북한 대표단의 돌연한 방문 취소로 모임이 무산되고 말았다. 북한측은 방한 예정일 하루 전에 갑자기 방한 취소를 통보했는데, 남한 정부가 신변보장각서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통일원은 이는 북한측이 대표단 구성과 기술직 문제에 있어 양측의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총회참석을 고의로 거부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이후로도 교회협의회 측은 북한교계 인사들의 남한 방문과 글리온 회의의 한반도내 개최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1998년 5월에는 교회협의회 대표들이 북한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합의를 이루었으나³⁸⁾,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교계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같은해 벌어진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에 대해 교회협의회가 ‘북한은 적대적 자세를 버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³⁹⁾, 이 때문인지는 모르나 북한이 1998년 8.15 축전에 교회협 인사들을 초청했다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등, 교회협의회와 북한 당국간에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간의 접촉을 통하여 양측이 서로에 대하여 가졌던 ‘환상’ 같은 것이 깨지고, 특히 교회협의회와의 접촉을 통하여 더 이상 실익을 얻을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북한 측의 인식변화가 결정적 요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2. 북한선교 운동

가. 배경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운동은 ‘통일운동’과 더불어 현재 남북간 종교교류의 다른 한 큰 갈래이다. 이의 시작은 오래 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북한선교 운동이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먼저 앞서서도 말했듯이 80년대 이후 북한교회의 실상이 외부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가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북한선교운동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열기를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공헌하였다. 현재 북한선교운동은 이 ‘지하교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북한교회를 ‘재건’하는 쪽으로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로 80년대 후반 공산권의 몰락과 세계적인 개방화 불결이다. 이것은 북한선교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먼저 공산권 몰락과 기독교의 관계이다. 교회는 소련과 공산권의 몰락, 그리고 중국의 개방화를 공산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로 보았다. “철의 장막을 넘어” 복음을 전파해온 교회의 노력과, 공산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공산권내 지하 ‘카타콤’ 교회가 벌여온 순교자적 투쟁이 결국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선교 운동에 있어

38) 국민일보 1998년 6월 3일자 참조.

39) 국민일보 1998년 7월 1일자 참조.

서도 이것이 결국 북한에서 ‘복음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의미가 있었다.

다음으로 공산권의 몰락과 개방화로 북한으로의 직간접적 접근이 훨씬 용이해졌다는 사실이다. 금단의 지역이던 동구권에 선교사들이 진출할 길이 열렸고 이 곳에 나와 있는 북한 관리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선교하는 유력한 북한선교의 방법이 제시되었다. 특히 북한과 인접한 연해주 및 만주 지역의 개방화는 이 곳이 북한 선교의 직접적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고무적인 일이었다.⁴⁰⁾ 현재 북한선교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곳에 북한선교의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 지하교회와의 직간접적 접촉을 시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현황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개신교파들과 주요 교회들이 산하에 각종 북한 선교 기구들을 두고 있으며, 초교파적이고 사조직적인 성격을 갖는 북한선교단체들도 다수 존재한다.⁴¹⁾ 이들의 활동 역시 숫자만큼이나 다양하여, 라디오를 이용한 대북 방송선교에서부터 해외거점을 통한 간접선교, 풍선을 이용한 비라(전도지) 살포, 극히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잠입을 통한 직접선교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운동은 통일된 구심점이 없이 각 교파나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 개신교회의 분파적이고 독립적인 성향으로 미루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북한선교 운동은 가히 열풍이라 할 수 있을만큼 열기가 고조되어 있다. 비록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북한선교 운동은 열기나 규모로 볼 때 분명 폭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연 북한선교 운동은 앞으로의 남북관계와 통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 북한선교 운동의 현황과 본질, 목적등에 대한 고찰해보기로 한다.

현재 북한선교 운동을 벌이는 단체나 조직은 1) 라디오 방송기관 (극동, 아세아, 기독교 방송이 있음) 2) 교파적 또는 개교회적 북한선교단체 3) 초교파적 단체 4) 북한선교 연구기관 5) 범교파적 북한선교 캠페인 등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현재로서 개신교회의 북한선교 운동을 총괄하는 중앙조직은 결성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북한선교 단체나 조직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간의 통합되지 않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호간에 종종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북한선교 기관들이 벌이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방송선교 : 주로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선교활동을 말한다. 방송선교는 현재 여건으로 가장 현실적이면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개신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극동방송의 “생명줄 던져”, 기독교 방송의 “복음은 어둠을 뚫고”와 같은 오직 북한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대개는 일반 기독교인 대상 프로그램이 북한지역으로도 자연스럽게 흘러들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

40) 국민일보 1997년 11월 20일자 참조.

41) 1988년 10/23일자 기독교 연합신문은 21개의 주요 북한 및 공산권 선교관련기관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공식적이고 소규모적인 모임들을 합하면 현재 북한선교 관련기구는 전국적으로 수백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 있다. 이들 방송들은 전파전달 가능지역이 매우 넓어 사할린, 만주에서도 청취할 수 있으며, 전파교란이 없다면 대부분의 북한지역에서 간단한 수신장치로 청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교포들을 통한 간접선교 : 남북간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북한으로의 접근이 비교적 용이한 해외 교포교회, 특히 만주와 연해주 교포교회들을 이용한 간접선교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왕래하는 교포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 이들을 이용하여 북한에 성경과 물자를 보내는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다.⁴²⁾

해외거주 또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선교활동 : 현재 구소련과 동구 등에 많은 수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으며, 이들이 북한 유학생, 공관원, 상사 주재원 등 동지역 거주 북한 주민들에게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몇해 전 귀순한 강명도(북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로 알려짐)가 동구 여행시 한 해외 선교단체의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다.⁴³⁾ 만주 지역에서는 탈북 주민들을 상대로 선교사 또는 현지 교포교회들이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⁴⁴⁾, 국제 체육행사나 무역거래로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선교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라(전도지) 살포 : 휴전선 부근에서 바람이나 조류를 이용하여 북한에 소형 전도지 비라를 살포하는 방법이다. 주로 기구(풍선)를 이용한다.

잠입을 통한 직접선교 : 아주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선교사들이 만주나 러시아 국경을 통하여 직접 북한을 왕래하며 선교를 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⁴⁵⁾

대북 식량 및 불자지원 : 북한의 식량난을 계기로 남한 교회의 북한돕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물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선교의 기초를 튼튼히 할 것”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느니만큼⁴⁶⁾ 이를 북한선교 차원의 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적십자사나 정부를 통한 공식적 지원도 있지만 국제기독교교우단체, 해외교포, 기타 비공식적 루트를 통한 지원량도 상당한 양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서도 한민족복지재단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나진에 제약공장을 설

42) 필자는 ‘모퉁이들 선교회’라는 한 북한선교 단체 관계자와 전화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 선교회가 북한으로의 성경(필)반입, 북한의 ‘순교자’ 가족들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만주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조선족들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43) 조선일보, 1994.7.30일자 참조.

44) 국민일보, 1997.11.20; 1998.2.27일자 참조.

45) 박완신, 통일의 그날, 207쪽; 이선규, “5만 기독교인 수용소에 갇혀 있고 생계 위해 국경매춘 성행하고 있다”, 신앙계, 1994년 8월호. 이선규의 글은 ‘김기석 장로’라는 가명의 한 선교사가 “비밀루트를 통해 북한을 여러차례 왕래하며 지하 선교활동을 벌여오고 있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방문시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선교사들의 북한잠입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할 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46) 국민일보 1997.4.28일자 참조.

립하고, 서울 소망교회(곽선희 목사 담임. 곽선희 목사는 월남인사이다.)는 나진에 기술대학 설립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⁷⁾ 한국기독교총연합은 산하에 민족통일 식량은행을 설립하고 2001년까지 2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⁴⁸⁾

공식적 인사교류 : 보수교단은 대북지원 사업전개와 더불어 1994년부터 북한 교회 당국과 공식적 접촉을 시도해 오고 있다. 몇몇 인사들의 방북이 개인적 차원에서 성사되고, 1997년 9월에는 한기총 관계자들과 조선기독교도연맹 관계자들이 제3국에서 만나 한기총 인사들의 방북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도 한기총 인사들의 방북 계획이 ‘북측의 지나친 요구’로 결국 무산되었다.⁴⁹⁾

이상에서 보듯이 북한선교운동은 큰 관심과 열기에 불구하고 아직은 ‘간접선교’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까지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북한선교를 자신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로 인식하는 한 북한 개방화 등 여건이 변화되면 북한선교 운동은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증폭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남북관계나 통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 평가와 전망

본절에서는 기독교 통일운동과 북한선교 운동이 통일과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 또는 미치게 될 - 영향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선교 운동이 남북평화통일과 남북간 화해 또는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 이에 대한 대답은 - 특히 기독교 통일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 명확히 부정적이다. 북한선교 운동은 기본적으로 ‘반공주의’의 정서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분히 공격적이고 ‘체제전복적인’ 선교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맹렬한 저항에 직면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남북관계와 통일의 전망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선교 운동이 ‘반공 캠페인’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세계선교 운동의 일환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선교의 주대상 지역이 공산권 또는 구공산권이기 때문에 이는 이미 반공 캠페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공산주의의 몰락은 교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벌여온 공산권 선교운동의 구체적 결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선교운동 역시 북한 공산주의를 패퇴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북한선교운동의 반공적 성격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특별한 적개심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해방 이후 공산 정권의 교회 탄압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북한 교회가 가졌던 공산주의에 대한 맹렬한 반감이 이후의 남북대결 상황과 북한의 기독교 탄압정책으로 남한 교회의 정서로도 굳어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 북

47) 국민일보 1998.3.19; 3.24; 8.7일자 참조.

48) 국민일보 1998.7.16일자 참조.

49) 국민일보 1998.6.20일자 참조.

한선교운동은 기독교의 유신론, 영혼구원, 종말 사상이 공산주의 특히 주체사상과 명확히 모순의 관계에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이러한 반공적 정서로 인하여 아무리 선교와 복음의 비정치성을 표방한다 해도 북한선교 운동은 근본적으로 반공운동으로서의 정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일부 북한 선교 운동가들은 복음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무기가 될 것이며, 심지어는 북한선교가 북한 내에서 무장 반체제 운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희망을 숨기지 않는다.

이러한 반공주의를 바탕으로 북한선교 운동에서는 북한내 반체제적 지하교회(소위 '카타콤 교회'라고 불리우는) 지원, 성경 밀반입, 선교사의 잠입, 전과를 통한 침투, 탈북자 포섭과 같은 공격적 선교전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외양적으로 분명히 체제전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들이다. 최근 대북 식량지원 등 '우회적' 선교전략들이 구사되는 경향이 있으나, 북한선교 운동의 반공적 정서는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선교 운동의 이같은 반공정서 및 공격적 선교전략은 대단히 위험스럽고 우려할만한 것이며, 따라서 북한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혀오고 있다.⁵⁰⁾ 북한선교 운동이 아직은 '외곽작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계기에 의해 이것이 북한 내부로의 '직접적 침투'로 발전하게 되면 북한에 기독교 탄압의 열풍이 재연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남북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다.

뿐만 아니라 북한선교 운동은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활동 자체가 정부의 통제나 관리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부 급진론자들은 정부가 대북접촉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 반감을 표시하기도 한다.⁵¹⁾ 북한 정권이 북한 선교본자들의 독자적 대북접촉 노력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 들 경우 이것이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북한선교 활동의 대부분이 중국 등 세3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복잡한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북한선교 운동은 현재로서는 통일 및 남북관계의 전망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운동의 반공적 기조는 위에서 고찰한 북한 교회의 역사나 북한 당국의 기독교 정책을 감안할 때 매우 시대착오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기독교 통일운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통일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선교 운동의 반공적 성향은 통일을 위하여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들은 통일은 반공이 아니라 오히려 반공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적 회심'⁵²⁾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적 회심'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는 공산주의, 북한의 정

50) 박종화, 「남북교회 상봉기 3 -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워싱턴 협의회의 배경」,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49쪽 참조. 연변에서 대북 선교활동에 종사하다 1995년 7월 납북된 안승운 목사 사건이나, 최근 김진경 연변 과기대 총장의 구급 사건 등도 북한선교 운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경고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김진경은 광선회 목사와 함께 북한을 수 차례 방북한 기독교계 인사이다. 그가 역류 중 한국 교회가 식량지원을 통하여 북한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체제전복을 꾀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밝힌 것은 (중앙일보 1998년 10월 27일자 참조) 우리에게 여러 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1) 국민일보 1997.4.28일자 김명혁 목사 기고문 참조.

52) 홍근수, 「남북한 교회의 선교적 공동과제」,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322쪽

치체제, 주체사상 등과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반공적 입장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마르크스주의나 주체사상을 반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해하여 왔으나, 본래적 의미에서 기독교는 “불평등한 자본주의보다는 공유평등한 공산주의”에 가까우며,⁵³⁾ 물질이 아닌 인간이 역사와 정치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근본정신은 기독교의 인간존중 사상과 일치한다고⁵⁴⁾ 이들은 주장한다.

통일론자들은 ‘이데올로기적 회심’은 북한 정권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지평을 열어주며, 조국 통일을 위해 이러한 인식의 일대 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 교회가 맹목적 반공주의에 집착하여 북한 정권을 사악한 반기독교적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선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조선기독교도연맹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한다는 통일의 절대명제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선교도 체제에 도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제를 초월하여 예수를 구주로 신앙고백을 하게끔”⁵⁵⁾ 하는 새로운 신학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들은 말한다.

북한선교운동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통일론자들의 기본적 오류는 비기독교적 ‘통일지상주의’이다.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공산정권을 포용하라는 요구는 곧 기독교를 포기하라는 요구라는 것이다.

기독교와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이 서로 융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난해한 신학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태도와도 관련된 문제로 본 논문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⁵⁶⁾ 우리의 관심은 기독교 통일운동이 통일과 남북화해에 과연 기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기독교 통일운동이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을 바탕으로 북측이 내세우는 통일론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에는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수의 주장들이 들어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선교류의 원칙보다는 북한이 주장해온 선정지타결의 원칙에 가깝다. 또한 통일논의에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독교 통일운동은 통일과 남북관계에 있어 정부와 갈등을 유발하고 북한의 대남 전략에 악용될 소지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문익환 목사의 불법 방북 사건이다. 북측이 어떻게 이 사건을 대남선전에 활용했고 이 사건으로 어떠한 국론분열이 빚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기독교 통일운동이 막혀 있던 남북간 종교교류의 길을 열고 이를 통해 우리가 북한 기독교의 실상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회심’은 아닐지라도 남북 종교교류가 반체제적이 아닌 체제포용적 동기와 전술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도 충분한 일리는 있다. 그러나 7-80년대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그

53) 홍근수, 「통일의 길, 십자가의 길」, 222쪽

54) 박재순, “주체사상과 민중신학”,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 185-202쪽. 주체사상의 기독교적 수용, 즉 ‘주체신학’의 문제는 기독교 통일운동론자들이 주장하는 소위 ‘통일신학’ 논의의 핵심적 사상이다.

55) 고태우, 「북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 81쪽.

56)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곳곳에 이 문제가 깊이있게 언급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왔던 것처럼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와 교회가 격렬히 대립한다든지, 북측의 대남전술에 기독교 통일운동이 악용된다면 이는 통일과 남북화해에 분명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IV. 결 론

남북의 적대감 해소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 조국 평화통일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고 할 때 종교적 차원에서의 교류확대는 이의 실현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안의 하나이다. 원칙적으로 말해 우리는 남북 종교교류의 확대가 조국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종교교류의 구체적인 면에 들어가면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 기독교 교류 확대 노력은 자칫 통일이 아닌 분열운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보적 교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독교통일운동'은 명확히 조국의 평화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독교 교류운동이다. 그러나 기독교 통일운동은 이의 반체제적 정서와 통일에 대한 '정치적' 접근방법으로 인해 정부의 통일정책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7.4공동성명 이후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줄기차게 추진해온 남한의 '진보적 기독교인들과의 통일전선 구축'전략에 말려들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남북 기독교 교류의 다른 한 갈래인 북한선교운동은 이것이 갖는 '반공 캠페인'적 성격 때문에 북한 당국의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북한선교운동은 북한 당국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더욱 경색시킬 뿐 아니라 남북관계 나아가 조국통일의 전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은 남북 기독교 교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문제의 심각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현재의 남북종교교류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남북 종교교류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오히려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교류의 방향을 점점 수정하고 교파간의 협력과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⁵⁷⁾ 특히 공산주의의 몰락에 고무되어 열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선교운동에 대해서는 단순히 신앙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관계, 북한 당국의 기독교 정책, 통일의 정치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새로운 통일신학 이론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공격적인 선교전략 추구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경색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와 정부 차원에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기독교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회의 독자적이고 반정부적인 통일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통일을 둘러싼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통일논의와 정책수행의 과정에 이를 적극 수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하겠다.

57) 이문식, "개별 영웅 비밀주의의 통일운동 분열 초래위험," 『신앙계』, 326호(1994,6), 50-53쪽

<參考文獻>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 한국 민족교회 형성과정사」. 증보판. 대한기독교서회, 1973
-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편저. 「한국교회선교의 비전과 협력」 도서출판 햇불, 1992
- 박완신. 「통일의 길목: 선교지 북한에 대한 바른 진단」 도서출판 엠마오, 1989.
- . 「통일의 그날 : 북한의 종교와 대북한 선교전략」 도서출판 엠마오, 1989
- 「북한도 복음화하라. 북한선교시리즈Ⅱ:LNK'88강연수록집」. 은석논장, 1989
- 재일대한기독교회총회 남북선교연구위원회 편. 「평화통일과 그리스도인의 역할: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 형상사,1990.
-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 기독교문사, 1990
- 형상사 편집부 편. 「교회도 하나 나라도 하나」. 형상사, 1989
-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육원. 「민족의 회년을 향한 행진」. 한신대학 출판부, 1993
- 양은식 외. 「분단을 뛰어넘어」. 증원문화, 1988
- 홍근수 목사 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 편. 「통일의 길, 십자가의 길: 홍근수 목사 법정일지」. 도서출판 한울,1991
- 김홍수 편 「해방후 북한교회사: 연구, 증언, 자료」. 다산글방,1992
- 고태우. 「북한의 종교정책」. 개정판. 민족문화사,1989
- . 「북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은석논장, 1990
- 재일대한기독교회.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자 도교회의」. 형성사,1994
- 김광수. 「북한기독교탐구사」. 기독교문사,199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남북교회의 만남과 평화통일신학:기독교통일운동 자료 및 평화통일 신학논문 모음집」.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90.
- 박요한. 「평양의 낮과 밤」. 부흥출판사,1989.
- 이정근. 「주님! 평양에도 계셨네요」. 도서출판 광희, 1991.
- 김수읍.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선교현황과 정책」. 책사랑, 1990
- 오현기. 「한국복음주의 교회의 남북통일과 북한선교 논의」.(고신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90)
- 신평로교회 선교부, 편. 「북녘의 하늘과 그 땅」. 도서출판 미진,1991.
- 유종선. 「한말의 개신교와 국제정치, 1882-1895: 초기 한미관계와 한국의개신교 수용과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2)
- Paik, L.G.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Fourth Edition and Reprint.* Yonsei Univ. Press,1987.
-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 그 삶의 현주소」. 박영사, 1986
- 서대숙. 현대사 연구회 옮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 이론과 실천,1990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일보사,1993.
- 강정구. 「북한의 사회」. 을유문화사,1993
- 이병길. 「중국선교의 어제와 오늘 : 한국선교사가 본 중국 선교」. 2판. 개혁주의신행협

회,1993

이능화. 『朝鮮基督教及外交史』.영인본. 한국학연구소,1977.

홍동근. 『미완의 귀향일기』. 상,하. 한울,1988.

『신앙계』. 329호(1994.8), 326호 (1994.6).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 평양:사회과학출판사,1975

“종교 교류를 통한 남북협력의 모색”에 대한 논평

정준표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유종선 교수님의 논문을 이 분야에 문외한인 저로서는 배운다는 입장에서 읽었고, 또 그 결과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 주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은우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선교수님의 논문은 북한내 기독교의 현재 상황 및 북한 당국의 기독교정책을 다루는 제2장, 남북간 종교교류를 크게 진보적 교계 중심의 ‘기독교 통일운동’과 보수적 교계 중심의 ‘북한선교운동’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짚어보는 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논문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는 어렵고, 주로 소위 ‘비교적 시각’을 가지고 유교수님의 논지에 대해 토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2장에서 유교수님은 북한에서 기독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이유로 북한교회의 전통적 반공주의, 부르주아적 계급성, 친미주의 때문에 북한당국의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진보적 해석’을 소개하고 거기에 유보적이지만 일정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교, 천도교, 천주교 등 다른 종교의 현황은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종교의 교세도 북한 내에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천주교는 예외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기독교만큼 탄압 받지는 않았더라도 북한 내에서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탄압 받은 이유로 기독교의 반공주의, 부르주아적 계급성, 친미주의를 들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에만 특이한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전체가 미미한 교세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런 다음 기독교의 특이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보다 균형적 시각이 아니겠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하교회’의 실체와 관련하여 북한이 유례없는 통제사회인 점을 감안하면 수백 개의 지하교회가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보수교단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하시면서 북한 당국의 목인이 실제로는 지상교회인 수백 개의 ‘지하교회’의 존재 기반이 아니겠는가 라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유교수님의 분석이 좀 더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굳이 반론을 위한 반론을 하나 제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유례없는 통제사회라도 그 통제의 능력과 일반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논문에서 들고 있는 로마사회는 어느 정도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수백 개가 발각되지 않고 살아 남기에는 어렵다고 해도 보수교단의 논리도

조금은 수용할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유교수님의 “북한이 벌여온 ‘반종교선전’이 공식적인 종교금지라고 할 수 없으며 중요한 것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실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며,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고라도 종교를 가지려한다면 어쩔 수 없이 묵인하는 것이 북한 당국의 공식적 종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논리적 측면에서 보면 그 말씀은 타당한 것 같으나, 종교금지 내지 탄압을 이와 같이 좁게 해석한다면 종교적 탄압을 하는 국가들이 과연 몇 개나 있었습니까? 비교적 시각에서 이야기하면 북한의 종교정책은 여타 구 사회주의국가에 비해서는 유례없는 반종교적인 것이었고,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경우 종교의 자유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두고 평가하면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는 곳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종교정책이 종교금지와 말살이 아닌 ‘종교개조’였다고 하더라도 그 둘의 차이는 실제 50보 100보의 차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기독교 정책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2장 제3절에 관한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에 제가 사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북한헌법의 종교관련 조항의 변화 -예컨대 68조의 ‘누구든지’라는 자구의 삭제 배경, 더 나아가 형법 등 관련법규의 변화가 있다면 거기에 관해서도 유교수님의 탁월한 해석을 가미해 주신다면 북한의 종교정책의 변화를 좀더 잘 이해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내용에 관해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 하나만을 지나가는 길에 제기하고자 합니다. 62쪽의 주체사상과 기독교교리와의 관련부분에서 “주체사상에서는 관념론과 형이상학적 요소를 지닌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대신”이라는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유물론과 관념론 및 형이상학적 요소는 상치되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논문 내용중 사소한 부분이지만 궁금하여 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3장의 내용에 대해 한 두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통일운동과 북한선교운동의 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는 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기독교 통일운동의 ‘민중 지향적’ 성격이라든지 여타 민간통일운동과의 관계에 대해 좀더 언급해 주시면 그 다음에 3장 3절 평가와 전망에서 다루시는 두 운동의 한계를 이해하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운동이 과연 남북평화통일과 남북간 화해 또는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유교수님은 상당히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종교적 교류는 그 유사성도 또 차이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종교교류가 일반적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하나로서 가지는 역할 및 한계와 다른 교류와 비교하여 종교적 교류로서 가지는 역할 및 한계를 분리하여 정리하신다면 좀 더 이론적으로 명확한 논문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토론자의 역할을 맡아 단순히 토론을 위한 문제제기,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기실 본 논문은 그 다루는 내용도 방대하고, 그 성격상 아주 이론적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유교수님의 계도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남북 종교교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 기독교의 역사, 현실, 북한의 기독교 정책 등도 함께 다룬 것입니다. 저의 무리한 요구 중 일부는 아마도 유교수님의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심층적으로 다루어졌고, 혹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큼 성의를 다하신 유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적어도 저로서는 이번에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교 교류를 통한 남북협력의 모색”에 대한 논평

전성표

울산대학교 사회학과

유교수는 지난 50여년에 걸친 북한교회의 동향과, 북한의 기독교 정책변화,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남한측의 노력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우리가 회의적으로만 여기고 있던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이념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무엇이 접근가능하고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남북간의 교류가 다소 적극성을 띠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시의 적절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1. 먼저 기독교교류가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유교수의 견해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반적인 경우가 있어 유교수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소 혼동스럽다.

필자는 남북간 종교교류가 남북의 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의 말미에 기독교교류를 전망하는 부분에서는 이러한 주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 즉 북한선교운동이 북한의 체제전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치거나 기독교 탄압을 촉발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북한선교(보수주의자의 활동)나 통일운동(진보주의자의 활동)이 정부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교수는 기독교 교류(대북선교활동)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회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남북한의 인사들이 만났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는 상징적인 교류가 아니라 남북관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독교 교류는 가능한 것인지, 나아가 기독교 교류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입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2. 유교수는 중반부에서 북한선교가 공산권 또는 구공산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선교의 일환이라고 말하면서, “공산주의의 몰락은 교회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벌여온 공산권 선교운동의 구체적 결실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 유교수는 자세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나, 공산권 선교활동이 공산주의체제의 몰락에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공산권의 몰락은 90년대 초반을 전후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국가들의 생산과 분배체계의 한계, 경제상황, 국내의 정세, 다른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 역사적 상황 등에서 그 원인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선교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산권의 붕

괴를 유발했는지, 또한 이러한 선교운동이 그 당시 동구권 국가들이 처해있던 경제적 상황이나 국제 정치적 상황과 비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생각은 기독교가 남북교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유교수의 낙관적인 생각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된다.

3. 유교수는 남북한 기독교 교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남북간 교류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든지, 기독교와 공산주의간에 이념적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독교의 남북교류가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남북간 종교교류가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남북관계 및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북의 종교교류가 가능하고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1)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두 집단이 이념적으로(예: 유물론, 기독교의 침략성, 신의 존재여부, 미국을 보는 입장의 차이 등)에 얼마나 접근해 있는가 하는 점과, 2)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북한과 남한의 기독교단체들이 각자 자기의 체제 속에서 얼마나 대표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 그 동안 심하게 기독교를 탄압하지는 않았거나, 현재 북한에 상당수의 지하교회와 신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남북한의 종교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의 기독교 인구는 1만명, 5만명, 혹은 150만명이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나타난 기독교인의 숫자와 세력은 극히 미미하다. 특히 북한이 체제의 위협이 될만한 교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단체를 공식단체로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북한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조선기독교연맹은 필자가 말한 대로 공산주의체제를 옹호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이 기독교를 심하게 탄압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독교를 탄압하였던 북한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공산주의 이념을 적극 옹호하고 기독교의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배격하는 입장에 서있었기 때문에 용인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산주의 이념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을 북한의 교회들, 특히 유신론이나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북한의 기독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남한의 기독교와 이념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점은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북한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진보주의적 단체들은 통일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데, 이들은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군사력 감축, 핵무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요즘 정부의 대북 정책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진보주의자들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에 부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필자가 주장하는 대로 정부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이 정부의 인정 하에 공식적이고 활발한 남북교류를 벌이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데올로기의 회심이라는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것이며 (예: “기독교는 불평등한 자본주의보다는 공평한 공산주의에 가깝다”) 나아가 기독교의 많은 교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들이 과연 기독교인들에게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며, 아무리 통일이 라는 과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까지 더 이상 포기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것도 지켜봐야 할 문제다.

이점은 보수주의자들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의 활동에 다소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다양한 북한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수주의자들은 북한의 기독교를 지원하여 공산주의를 전복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선교활동을 지탱하는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반공이다. 보수주의자들이 북한을 전복시켜야 할 체제로 인식하고 있는 한 북한이 보수주의자들을 북한과의 교류대상으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필자는 북한의 개방화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남북간의 종교교류는 활발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원인이 흡사 북한에 있으며, 남한의 기독교단체 사이에는 웬만한 합의나 준비가 이루어져 있어서 북한만 변화한다면 남북교류는 활발해 질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주장이다. 그러나 남한 기독교 단체들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남북교류에 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즉 북한이 남북종교교류를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북한의 기독교보다는 교리, 이념, 목표, 교류방법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른 남한의 기독교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해체모니의 다툼이 남북교류에 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4. 북한과의 종교교류가 과연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기독교교류를 허용하는 북한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기독교인구가 1만명, 5만명, 심지어는 150만명나 된다는 주장도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듯,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정확하지 않으며, 신뢰하기 힘들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은 개인적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이나, 중국이나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간접적 지식 등 단편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북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 기독교교류의 전망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의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